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호 【루계 제25534호】 주체106(2017)년 1월 2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총진군해나가는 필승의 기상

새해 첫 20일동안 전국적인 공업총생산액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 장성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새해 첫 20일동안에 전국적인 공업총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장성하는 혁혁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5개년전략수행의 전 전선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높이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자력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임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승전포성들이 정초부터 경공업부문과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뢰성같은 심장을 당중앙위원회뜨락에 이어놓고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으로 이룩하고있는 이 자랑찬 성과는 백두산대국의 승리적전진에 질겁하여 최후발악하는 원쑤들의 가증스러운 면상을 단호히 후려갈기며 백두의 칼바람마냥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금 만방에 떨치는 일대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평양가방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경김치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슴뜨거운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은 전체 군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평양가방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을 폭포처럼 쏟아내는것으로 새해의 첫 대문을 열어제끼였다.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비약의 큰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억세게 지켜선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활화산마냥 지펴올리였다.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각각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던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각종 설비들의 기술개조와 현대적인 장치들의 개발도입을 다그쳐 초기당출력을 8 000kW이상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순천화력발전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설비, 자재의 국산화실현에 드센 박차를 가하며 종전보다 설비가동시간을 1.2배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각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5개년전략고지를 앞당겨 점령하려는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가 대하마냥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수풍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가 혁신의 앞장에 섰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수풀처럼 일떠세운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날에날마다 많은 전력이 쏟아져나왔다.

그리하여 전력공업부문에서 매일 계획보다 60만kWh이상의 전력이 증산되여 대고조진군에 거센 박동을 더해주었다.

주체화의 로정높이 자립의 무쇠기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고있는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주체철과 강철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리였다. 특히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일정계획보다 강철생산량을 근 1.2배로 높이고 42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은률광산, 재령광산이 철광석생산실적을 훨씬 높이였으며 금속공업성적인 후연과 규소철생산도 장성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에서 1월 가성소다, 염산, 염화비닐생산계획수행을 담보하는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으며 첫 열흘동안에만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 000여t의 주체비료를 증산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첫 하루동안에만도 지난해 같은 때보다 근 7 000t의 석탄을 증산하는 위훈을 창조한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였으며 개천, 북창, 득장,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들이 일별목표를 어김없이 완수하였다. 강동, 천내, 명천, 온성, 경원, 구장,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도 석탄생산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져 석탄공업성적으로 새해에 들어와 높이 세운 계획보다 하루평균 1 000t의 석탄을 증산하여 발전소들과 금속, 화학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성적으로 석탄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13개의 중심공정대상에 력량을 집중하고 하루 탄층속갱도보유m수를 종전에 비해 수천m 더 늘이도록 하면서 20일간의 기본굴진, 준비굴진실적을 일정계획보다 훨씬 높이였다.

철도성과 각 철도국, 분국들에서 수송지휘를 기동적으로 하고 집중수송렬차들의 무사고주행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20일현재 철도성적으로 일화물수송계획이 평균 102%이상으로 넘쳐 수행되였으며 첫 열흘동안에만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발전소물동수송량은 1.1배, 금속공장물동수송량은 2.5배, 화학공장물동수송량은 1.3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언제나 우리 당이 제일먼저 찾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미더운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으로 세멘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강행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지핌으로써 일정계획을 106%로 넘쳐 수행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과 대안친선유리공장의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세멘트와 판유리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129%, 117%로 장성시키였다.

자강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강원도림업관리국 등 각지 림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높이 세운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일별로 초과수행하였으며 대안과 룡성, 락원의 대규모기계제작기지들에서 대상설비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명주실, 세수비누, 마이싱 등 여러 지표생산이 일정계획보다 훨씬 장성하였다.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미더운 건설자들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현재 총공사량의 79%계선을 돌파하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새로 일떠서는 공공건물들의 공사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쳐지고 에네르기절약기술, 록색건축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여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됨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이 자력자강으로 창조해가는 문명이 과연 어떤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줄 승리의 그날이 하루하루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새해의 첫 20일간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이룩된 혁혁한 성과들은 그 어떤 역풍이 불어친대도 오직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의 성새를 이루고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쳐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자력자강의 거세찬 대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며 5개년전략고지에 붉은기를 펄펄 휘날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만리마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순천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림업부문을 힘있게 지원

자강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자강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림업부문 로동계급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탄광들의 동발나무생산을 맡은 림업부문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림업관리국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나무와 동발나무생산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며 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이와 함께 도급기관들과 시, 군들에서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작업소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도급기관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림업부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지난 15일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에 달하는 도급기관들에서 5천여명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성간림산사업소의 창평작업소에 달려나가 탄광들에 보내줄 동발나무사이나르기를 진행하였다.

눈덮인 산판들에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고 《당의 사상관철전》, 《백두의 혁명정신》, 《만리마속도》 등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표어들과 속보판이 나붙은 동발나무사이나르기전투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도예술선전대원들의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화선식기동예술선동활동은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력량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는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이신작칙에 고무된 도급기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창평작업소에서 수십일동안 해야 할 동발나무사이나르기과제를 하루동안에 해제끼는 위훈이 창조되였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도송배전부, 도대흥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림업부문 로동계급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적극 떨쳐나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이날 희천시, 동신군, 송원군, 전천군, 화평군, 룡림군, 만포시를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작업소들에 달려나가 동발나무사이나르기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2만여m³의 동발나무를 끌어내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급기관들과 시, 군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크게 고무된 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풍요한 다시마작황 마련, 생산성과 확대

수산성아래 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서해의 드넓은 바다가양식장들에서 올해 첫 다시마생산이 시작되였다.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양식장면적이 지난 시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부포, 구미포,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를 비롯한 서해지구에 례년에 보기 드문 다시마작황이 펼쳐졌다. 씨붙임이 지난 시기보다 잘되고 다시마모의 성장상태가 좋아 정보당 높은 수확고를 내다보고있다. 솎음생산이 시작된 요즘 하루 100여t의 맛좋은 다시마가 생산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리며 양어와 양식을 근기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당의 부름따라 전민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수산성과 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지난해말에 이어 새해 정초부터 날바다와 싸우며 다시마모내기와 그 비배관리를 짜고들었다.

수산성에서는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할 높은 목표밑에 양식장면적을 지난 시기보다 늘이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우리의 비날론을 가지고 질좋은 양식바줄을 생산하면서 지방자재들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많은 다시마모부착줄과 띄우개들을 만들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적지 않은 량의 철강재를 대신할수 있는 수많은 고정닻돌도 자체로 해결하여 바다가양식장의 면적을 지난해보다 수십정보나 더 늘이였다.

다시마생산을 늘일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춘 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일제히 다시마모내기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들은 강추위, 파도와 싸우며 다시마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닥닥 달라붙어 끝낸데 이어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었다.

특히 무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많은 량의 다시마모를 키워내여 각지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서해양식장들에서는 양식공들이 솎음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부착줄당 다시마모의 포기수보장과 비료주기를 비롯한 모든 작업공정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수산성과 각지 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날바다우에서 침입식사상공세를 들이대면서 중요한 다시마작황을 마련하기 위한 새 기술도입과 보여주기사업을 수시로 진행하여 보다 좋은 다시마작황을 마련해가고있다.

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바다물온도와 해비침조건에 맞게 양식장관리를 더욱 짜고들면서 다시마생육에 따르는 솎음생산을 잘하여 생산량을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반, 직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속에 전마선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양식공들은 다시마생산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끌어올리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양식장별 다시마생육상태에 따르는 과학적인 솎음생산방법을 받아들이고 날바다와 싸우며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철강재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청진강재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철강재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지난 20일현재 1월 철강재생산계획을 101%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철강재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해주고 걸린 문제들을 솔선 풀어주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새해 첫날 아침 유도로직장에 나가 용해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였다. 그리하여 지난 1일 하루동안에만도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의 각강을 생산하는 혁신이 일어났다.

공장에서는 증산의 고리를 원료보장대책과 기술개건에서 찾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참모부에서는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운반수단들을 집중배치하였으며 유도로들과 압연기들의 보수정비를 적극 따라세워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생산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은 일군들은 유도로에 전력조절장치를 받아들여 각강생산을 1.2배로 높이고 소형압연연신기를 새로 제작하여 제품의 종류를 늘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직장, 작업반,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철강재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졌다.

철강재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유도로직장의 용해공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용해공들은 유도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교대당 한차지이상의 쇳물을 더 뽑아냈다. 그들은 장입물보장과 온도조절을 잘하여 용해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용해1작업반의 용해공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각강생산계획을 매일 120%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압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압연기를 비롯한 수십대의 설비와 기대들을 만가동시키였다. 가열작업반원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각강가열시간을 훨씬 줄임으로써 철강재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이는데 한몫하였다.

새해 첫달 철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긍지드높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올해에 높은 강철증산성과로 당을 받들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세포등판에 결사관철의 정신이 나래친다

922건설돌격대에서 20여일동안에 6만여t의 토양개량제 생산, 운반전투 활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922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새해벽두부터 토양개량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여 20여일동안에 6만여t의 토양개량제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인민보안성려단에서 새해의 첫 진군포성을 제일먼저 힘차게 울리였다.

올해전투 첫날 아침 유기질비료운반을 위한 행군길에 나선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우렁찬 노래소리, 화물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의 힘찬 동음이 세포등판을 뒤흔들었다. 이들은 왕복 수십리길을 쉬임없이 내달려 하루에 700여t의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운반해냈다. 군인건설자들의 열의가 앙양되는 가운데 려단의 전투성과는 더욱 높아져 20여일동안에 1만여t의 각종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격렬한 최전방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기관차가 되여 대중을 이끌면서 그들이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번정덕, 리성봉, 신광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토양개량제생산 및 운반실적이 시간마다 높아지는 현장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정황에 맞는 방도를 찾아 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예기있게 해나갔다.

결사관철의 함성이 뢰성처럼 터져오르는 각 사단의 전투장들이 활화산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세포군사단의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 혁신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대성지도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또한 새로 맡은 집짐승우리건설을 힘있게 벌리는 긴장한 속에서도 진거름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내여 150여t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다. 대성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이 많은 량의 닭배설물을 현지에 보내주면서 이들의 전투를 힘껏 떠밀어주었다. 1월 토양개량제생산계획을 남먼저 수행한 농업성, 륙해운성, 림업성,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은하지도국 그리고 조선대양해운회사를 비롯한 다른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도 원료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맡겨진 전투과제수행에서 새 기록을 돌파해나갔다.

평강군사단의 각 도, 시려단들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이어 전해졌다. 황해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천t의 토양개량제를 집적으로 생산해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지난해 지력을 부쩍 높여 먹이풀수확을 3~4차에나 진행하여 최고실적을 올렸던 평양시려단 중구역대대에서 년간 토양개량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라선시려단을 비롯한 다른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집짐승배설물과 진거름으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내기 위한 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이천군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갔다. 1월 토양개량제생산과제를 앞당겨 끝낸 수도려객운수국, 유원지총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민대학습당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해당 단위 책임일군들과의 련계밑에 많은 량의 각종 토양개량제를 생산하였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토양개량제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운반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대성지도국돌격대에서—

강원도정신의 본질과 기본내용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자력자강의 승전보성을 힘차게 울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의도대로 강원도정신의 위력을 충폭발시키며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강원도정신의 본질과 기본내용을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일군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시대정신과 투쟁경험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일반화하여 그것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강원도정신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충정의 마음이다. 다시 말하여 모진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사생결단의 각오와 백절불굴의 의지로 떨쳐일어나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강원도정신에는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기상이 응축되여있고 강성부흥의 령마루에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 비껴있다.

강원도정신은 수령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결사의 정신이다.

강원도인민들은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보여준 신념의 강자들이다.

수십km의 물길굴뚫기는 발전소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전투였다. 기성관념으로는 지질학적특성으로 하여 붕락이 심하고 지하수가 많은 구간으로 물길굴을 뚫고나간다는것이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러나 건설자들은 엄혹한 현실앞에서 추호의 동요나 비관, 주저를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잡아주신 물길굴위치에서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하루빨리 발전소완공의 보고를 올리자, 이것이 물길굴건설장에 차넘친 불같은 맹세였다. 한m한m가 피와 땀으로 이어지는 물길굴속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가려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고 순간순간 위험이 뒤따르는 막장에서는 굴진전투가 힘차게 벌어졌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차디찬 물속에서 착암과 발파를 하고 고무배, 나무배 등을 리용하여 혼합물과 버력을 실어날랐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림시물막이구조물해체전투에 서슴없이 나선 불굴의 투사들이 바로 발전소건설자들이다. 전사의 의리를 지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불사신마냥 일떠서 수년세월 악전고투하여온 강원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체위가 그대로 어려있는 유복자발전소가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서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억척의 신념을 지니고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나간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무강조국건설념원은 눈부신 현실로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될것이다.

강원도정신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지난해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당의 국산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공업토대도 미약한 강원도가 거창한 공사들을 마음먹은대로 해제끼며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근본비결은 바로 자력자강에 있다.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체질화한 강원도인민들은 우는소리를 하거나 남을 쳐다보지 않는다. 발전소건설에 리용된 시추기와 양수기, 고압애자, 수중케블선, 비닐관을 비롯한 자력갱생의 산물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강원도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고있으며 세멘트, 강재, 타일, 건재, 인공잔디, 벽돌, 기와생산기지 등 수많은 자력갱생기지들에 토대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야말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안아온 또 하나의 긍지높은 창조물이다.

지금 강원도인민들은 자기 힘으로 안아온 전기력, 소금력, 생물력을 보고있으며 자력자강만이 살길이라는 철리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칠 때 그 어디서나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조국의 진군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것이다.

강원도정신은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목표를 내걸고 그 점령을 위해 모진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이다.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는것은 강원도인민들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이다.

원산청년발전소에 이어 원산군민발전소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강원도인민들은 도의 전기문제를 완전히 풀 대담한 작전을 세우고 여러개의 발전소건설에 진입하였다. 이 발전소건설들은 원산군민발전소에 비해 언제성토량과 물길굴이 몇배나 되는 매우 방대한 공사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양표장, 도수산사업소, 양로원건설과 원산시 송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처럼 전변시키고 도의 농업생산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통이 큰 목표들을 련이어 내세우고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뼈에 새기고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강원도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에 의하여 온 도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제일 앞장에서 받들고 자기 도를 전국의 본보기도로 만들려는 강원도인민들의 신념은 확고하다.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창조와 전설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리며 힘차게 내달리는 강원도인민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의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의 본질과 기본내용을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학

우리 식 주체무기개발생산의 나날에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연길폭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라!

이것은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장군님께 연길폭탄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신 뜻깊은 당부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추켜드시였던 항일의 연길폭탄정신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굳건히 이어가시였다.

두해전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군혁명의 만년재보로 훌륭히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으시였다.

사적지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천벌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병기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어느덧 수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데 대하여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12월 12일 이곳을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키관단총시험사격을 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3일후가 바로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로부터 67년이 되는 날이라는것도 추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야 하는 건국의 초행길에서 우리 식의 국방공업창설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애국심을 지닌 조선로동계급에 대한 굳은 믿음이 기둥처럼 서 있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궁지에 넘쳐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수령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로동계급은 자그마한 병기공장에서 연길폭탄정신을 발휘하여 원쑤격멸의 무기들을 생산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억세게 자라났다고.

자그마한 병기공장에서 발휘된 연길폭탄정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루한자루의 총이 오늘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총대숲으로 무성해졌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흘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력량,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솟구칠수 있었다.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

지난해 9월 1일 《로동신문》 1면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혁명활동보도가 실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력강화의 길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건조와 탄도탄제작을 위해 10여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의논도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쟁그리 바쳐오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모든 성공과 승리의 단상에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내세워주시는 것 아닌가.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의지와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핵무력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진보를 이룩한 참가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감격에 겨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지며 우리 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게 안겨주시였다.

뜻깊은 그날 참가자들은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우리 식의 다양한 전략적공격수단들을 최고의 높이에서, 최상의 수준에서 개발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칠 불같은 명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리 금 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락원의 강 대동강반에 멋지게 일떠선 인민야외빙상장으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다. 이곳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행복넘친 사람들의 모습이 주는 여운은 실로 크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쓰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인민야외빙상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빙상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간막이한 유리창너머로 스케트를 타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을 보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인민야외빙상장이 멋있게 건설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빙상장에서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이 스케트를 타고있는데 이 빙상장은 삼복철에도 얼음이 얼게 되여있다고, 첨단기술이 도입된 빙상장을 잘 꾸려놓았으니 다음해부터는 삼복철에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스케트를 타는 희한한 풍경을 볼수 있게 되였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는 삼복철에도 스케트를 타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서, 우리 인민의 기쁨에서 제일 큰 락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건히 우러런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민야외빙상장에는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다심히 이르시며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그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인민야외빙상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 깊이 마음쓰시였다.

은반우에 펼쳐진 인민사랑의 세계

어둠이 깃들도록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밖에 나오시여서도 인민야외빙상장의 앞공지에 로라스케트장까지 꾸려주면 다기능스케트장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될것이라고 입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것만큼 형식보다 내용이 기본이라고 하시며 준공을 서두르지 말고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여 손색없이 꾸리라고 당부하시였다. …

이렇게 인민야외빙상장에 헌신의 자욱을 력력히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추위가 닥쳐드는 11월에도 이곳을 찾으시여 열렬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펼치시는것이였다.

랑의실에서 스케트를 신고 빙상장으로 드나드는 통로에 수지깔판을 깔았는데 이런 곳에는 고무깔판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각근히 이르신분,

빙상장리용방식에 대하여서도 친히 알려주시고 빙상장관리운영과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세세히 밝혀주신분,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복된 제부를 마련하시고 인민야외빙상장이라는 그 이름이 더욱 빛나도록 하신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륭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인민야외빙상장이 훌륭히 꾸려져 계절에 관계없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나어린 아이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다. 그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기쁨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오늘도 절세위인의 극진한 은정이 가득 넘치는 인민야외빙상장을 찾고 찾는 사람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인민들은 친근한 어머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모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나라, 내 조국을 길이 빛내일 보람의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고 강기섭동지의 장의식 진행

【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인 강기섭동지의 장의식이 2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장의식장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일편단심 우리 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강기섭동지를 너무도 뜻밖에 잃은 커다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장의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참가자들과 유가족들이 령구받침에 앞서 고 강기섭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령구가 받인되였다.

고인의 령구를 실은 자동차는 신미리애국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영결식이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진행되였다.

황병서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귀중한 혁명전우인 강기섭동지와 영결하게 된다고 하면서 당의 명도를 받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동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과 애도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유능한 비행사로 자라난 강기섭동지가 나라의 항공운수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주체적인용항공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기섭동지가 뜻밖에 사망하였다는 비보에 접하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고인의 령구를 찾아 고요히 잠든 사랑하는 전사의 얼굴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며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결한 사랑과 의리, 하늘도 바다도 옮게 할 이 감동적인 화폭은 혁명적동지애의 최고정화이며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전사는 영생한다는것을 불변의 진리로 새겨주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운명의 하늘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혁명대오속에 강기섭동지는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생전에 바라던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이 땅우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속에 고인의 유해가 묘지에 안치되였다.

고인의 유가족들, 참가자들이 흙을 덮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에 진정되였다.

당, 정권기관과 민용항공총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고 강기섭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강기섭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인민들속에서

빛나는 유산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

전 병 호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강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하여 유산으로 물려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오래동안 국방공업부문에서 일해오면서 나는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우리 수령님의 그 정력적인 령도에 대하여 수없이 목격할수 있었다.

내가 그런 행운을 지니게 된데는 이런 뜻깊은 사연이 있다.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7월초 어느날 중앙정위련대에서 복무하던 나는 류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있는 학생들을 보고 부러운 나머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 공부하고싶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무슨 공부를 하고싶은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고향에서 부모들이 농사를 하고있으니 나는 아무 생각없이 농사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나라의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그러니 쇠물을 녹이고 기계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쇠물을 캐서 쇠물을 녹이고 기계도 만들며 총과 대포, 비행기, 땅크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이 잘살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해방후 나라의 군수공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인민들과 개선인사들 나누시기 전에 먼저 병기공장터전부터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어머님의 당부대로 야금기술을 배우게 되였으며 그때부터 한생을 군수공업부문에서 일하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는가를 수없이 체험할수 있었던것이다.

그에 대하여 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었던 사실부터 이야기하려고 한다.

미제와의 최후결전이 한창 가렬하게 진행되고있던 주체42(1953)년 2월 27일이였다.

이날 이른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화속을 뚫고 내가 류학을 마치고 기사로 일하고있던 어느 한 군수공장에 찾아오시였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단 한시도 잊은적 없는 위대한 수령님을 5년만에 다시 만나뵈옵게 된 나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허둥지둥 달려가느라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나를 알아보시고 못내 대견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잘되였소. 포탄을 만드는 공장에서 기사로 일한다니 나도 기쁘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공장의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고 생산형편도 알아 료해하시고나서 일군들과 기술자,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그때 나도 그 협의회에 참가하였는데 수령님께서는 우리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며칠전 1211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이 자신께 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거기에는 포탄이 없어서 미국놈을 더 많이 잡지 못하니 포탄을 많이 보내달라는 사연이 적혀있었다고 하시며 절절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날 인민군용사들이 써보낸 편지를 읽고 밤새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나는 전선에 포탄을 더 많이 보내줄것을 바라는 인민군용사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불원천리 동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시고 어떻게 하면 포탄생산을 2배로 늘일수 있겠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준엄한 전쟁을 령도하시느라 그처럼 분망하신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공장을 찾아오시였는가를 알게 된 우리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하지만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당시 공장형편에서 포탄생산을 2배로 늘이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여서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는 우리들을 한참동안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방금전에 웃옷을 벗어던지고 땀을 흘리면서 펄펄 끓는 쇠물을 받아내며 기때에 넘쳐 일하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보았다고, 그들은 오직 당을 믿고 전쟁승리를 위해 한발의 포탄이라도 더 만들어보려고 애쓰고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포탄생산을 얼마든지 더 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장내를 향하여 물으시였다.

《동무들 생각에는 어떨습니까?》

우리 공장 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모두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래서 먼저 기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대능력은 있기때문에 약한 공정들을 추켜세우고 로력을 보충하면 포탄생산을 2배로 늘일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못내 반가워하시며 다시금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포탄생산을 기어이 2배이상 늘여야 하겠습니다. 믿을것은 오직 동무들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에 이번에는 로동자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고일어나 포탄생산을 기어이 올리겠다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나를 따로 부르시여 일은 힘들지 않는가, 생활에서 불편한것은 없는가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 야금기술을 배운 기술자인 내가 포탄생산을 늘이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이르시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루빨리 싸워이기자면 포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포탄생산을 꼭 2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울리는 나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그 결심이 마음에 든다고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그러자 로동계급속에서 단련하는것이 좋다고, 그러면 배운 기술도 더 익히고 로동계급의 혁명성도 잘 배우게 될것이라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이윽고 차에로 걸음을 옮기시던 수령님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일을 잘하여 진짜배기 혁명가가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헌신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군수공장의 로동계급은 불비쏟아지는 그 준엄한 속에서도 군수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다그쳐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전후복구건설시기와 1960년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다 아는바이지만 1960년대는 미제가 도발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우리 나라에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시기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온 세상에 과시한 력사적인 년대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 중대한 사변들이 벌어지던 초시기인 주체50(1961)년 5월 어느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소집하신 전국병기공업부문 당열성자회의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무렵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강선땅에 지펴주신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번져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었다.

그래서 회의에 참가한 일부 일군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가 토의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시고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체의 국방력이 없으면 어느때든지 그들에게 먹히울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파키 부패무능한 리조봉건통치배들이 문관을 중시하고 무관을 경시하는 중문경무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았기때문에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종당에는 나라를 빼앗기고말았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해방직후 국방공업부터 발전시켜 짧은 기간에 기관단총과 수류탄, 박격포들을 만들어 조국해방전쟁승리에 기여하게 되였다. …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미제의 새 전쟁책동이 날로 우심화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것을 요구한다고, 특히 오늘 사회주의진영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의 궤변을 보아도 우리는 더욱 혁명의 총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사실 그 시기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에 겁을 먹고 타협의 길로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헤쳐보시고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전취물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자면 군수공업부문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무장장비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선견지명은 다음해 1962년 미제가 혁명적인 쿠바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도발한 까리브해위기때 여실히 증명되였다.

혁명하는 나라, 작은 나라들을 짓뭉개버리려는 미제의 책동은 극도에 이르렀으나 대국이라고 자처하던 이전 쏘련도 그 오만한 행위를 지지시키지 못하고 끝내 굴복하고말았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1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기어이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고야말겠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경제와 국방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무렵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부족하였던 우리 일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에 경종을 울리시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중에는 주체55(1966)년 9월 어느날에 있은 이런 사실도 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도하시는 어느 중요지도일군협의회에 참가하게 된 나는 수령님을 뵈옵는 기쁨과 함께 개운치 못한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얼마전에 우리 공장에서 국내자재로 만든 제품들이 검사에서 오작이라고 판정되여 그 생산기술령을 책임진 기사장으로서 나는 응당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있던중이였기때문이였다.

3 면 으 로 계 속

당조직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자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깊이 심어주어

경성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최근 경성군에서 많은 일을 해제끼고있다. 김정숙료양소, 일향협동농장을 비롯한 명도업적단위들의 면모가 일신되였으며 버섯공장과 남새온실이 짧은 기간에 새로 일떠섰다. 지난 시기에는 엄두조차 낼수 없었던 읍지구의 도로포장공사도 통이 크게 진행되였다.

이런 성과들은 군당위원회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자강력제일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군당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된 최승남동무는 군안의 명도업적단위들부터 찾았다. 군문화회관, 온포휴양소 등을 돌아볼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명도업적단위들의 면모가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던것이다.

원인은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로력이 긴장한데도 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이 우만 쳐다보면서 자기 단위를 제손으로 꾸리려는 투철한 각오밑에 사업을 배짱있게 전개하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설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진리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였다.

군당위원회는 군문화회관개건공사부터 벌리도록 하였다. 그것은 자재소요량이 비교적 적은데도 있었지만 읍지구의 중심에 있는 문화회관이 짧은 기간에 개건되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타산에서였다.

공사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기능공이 부족한것이 제일 문제였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제대군인들을 한명한명 찾아냈고 그들이 병사시절처럼 살며 일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한명의 제대군인기능공을 위해 군당위원장은 수백리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치밀한 작전과 완강한 전개력에 의하여 공사는 불과 50여일만에 끝났다. 훌륭하게 변모된 외부며 태양과 별무리를 형상하여 천정조명장식을 한 내부를 돌아보며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어 김정숙료양소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전국각지에서 찾아오는 료양생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해 기울이신 백두산3대장군의 뜨거운 사랑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였다.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들이 컨물을 하나씩 맡아 개건전투를 통이 크게 벌렸다.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너냉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그리하여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김정숙료양소가 명도업적단위답게 훌륭히 변모되였다.

우리 경성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수 있다. 이것이 자기들의 땀이 깃든 료양각들을 돌아보고 무성한 숲속으로 시원히 뻗은 도로를 걸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새겨안은 확신이였다.

경성혁명사적관을 새로 꾸릴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내부장식작업에 능력있는 목공들만 동원시키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은 머리를 저었다. 그는 비록 솜씨는 서툴지만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꾸려야 할 단위들에서도 목공들을 선발하여 이 작업에 참가시키도록 하였다. 실천속에서 목공들의 기능을 높여주려는 의도에서였다. 경성혁명사적관의 내부장식작업과정에 기능을 훨씬 높인 목공들은 자기 단위들에 돌아가 혁명사적교양실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꾸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처럼 군당위원회는 사업을 하나 조직전개하여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집삼혁명사적지주변의 방과제건설과정을 통해서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이악하게 투쟁할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절감하였다.

세찬 파도가 쉬임없이 들이치는 바다기슭에 방과제를 군자체의 힘으로 건설한다는것은 매우 아름찬 일이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신심에 넘쳐 떨쳐나섰다. 군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 청년돌격대원들이 낮에 밤을 이어가며 힘찬 돌격전을 벌려였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려는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불과 5일만에 방과제건설이 끝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이것이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틀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자강력은 저절로 생겨나고 커지는것이 아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방법론있게 전개할 때 자강력은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일군들이 국산화실현의 앞채를 멜 때

대동강전기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대동강전기공장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국산화수준이 매우 높은것이다.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한 결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일군들을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몇해전 광폭프레스를 제작하던 과정을 놓고 보자.

변압기현대화에서 제일 난관은 랭각주름판제작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정적으로 광폭프레스가 있어야 하였다.

일부 초급일군들은 수입해올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초급당일군은 우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체로 만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국산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전형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여 일군들이 우리가 만든 첨단설비와 제품들을 실지 눈으로 보고 그 경험을 충분히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지배인이 구해온 광폭프레스와 관련한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일군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원리를 환히 꿰뚫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확신과 배짱을 가지고 대심있게 제작사업을 조직전개하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책임일군들의 선구자적역할을 중시하였다.

주요자재가 없어 광폭프레스제작사업에 난관이 조성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지배인은 잃는 몸으로 주저없이 길을 떠났다. 심한 동통으로 의식을 잃었던 지배인은 차마리를 돌리려는 운전사를 만류하며 출장길을 이어갔다. 그는 모진 고통을 이겨내며 먼길을 달려가 끝끝내 해당한 소재를 마련해오고야말았다.

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이신작칙하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짧은 기간에 설계도면이 완성되였고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창안도입되여 제작전투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이런 투쟁과정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광폭프레스를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완성해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런 투쟁정신과 기풍이 온 공장에 차넘치는 나날에 거의 모든 설비들을 국산화, 현대화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이 펼쳐져 현대적인 각종 변압기들을 펑펑 생산해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말그대로 공장은 자력자강으로 흥하는 공장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자력자강을 단위의 비약적발전의 무기로 틀어쥔 일군들의 기관차적역할은 이렇듯 중요하다.

본사기자

대담한 목표, 완강한 실천으로

평양종합인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출판물인쇄발행과 공장현대화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평양종합인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는 주목되는것이 있다.

종업원들을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잘 짜고들고있는것이다.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평양종합인쇄공장이 내세운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는 매우 높았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현지교시판, 현지말씀관교양마당주변 바닥포장공사만 놓고보아도 1 300여㎡나 되는 바닥을 들어내고 다시 콩크리트포장을 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이밖에도 출판물인쇄발행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사업, 락아소, 유치원난방보수공사,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은 공장의 실정을 놓고볼 때 매우 아름찬것들이였다.

하기에 일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는 높은 전투목표를 놓고 신심이 없어하는 편향들도 나타났다.

초급당위원장 송제남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해온 공장종업원들이 신들메를 더욱 조여매고 다시한번 비약하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고 신심드높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사상사업을 지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70일전투기간에 창조된 기적적성과들과 긍정적소행자료들, 전세대들이 보여준 영웅적인 투쟁자료들을 가지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것과 함께 실천투쟁을 통하여 종업원들이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데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자.

이렇게 결심한 초급당일군은 200일전투의 첫 목표를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현지교시판, 현지말씀관교양마당주변 바닥포장공사로 정하였다.

이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들이 자기 힘이 무궁무진함을 실천속에서 느끼고 200일전투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신심있게 떨쳐나서게 하자는것이였다.

초급당위원회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에 대한 참관사업,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기 위한 사업,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기 위한 사업 등 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해 나서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춘 다음 총정의 20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대중의 심장을 펑펑 울려주는 기동예술선동대의 위력한 경제선동과 정신이 번쩍 드는 직관선동을 비롯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집중되여 전투장을 들끓게 했다. 일군들이 종업원들과 함께 어깨를 걷고 땀을 흘리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갔다. 여기에 후방사업까지 안받침되니 종업원들의 정신력은 더욱 고조되였다.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공사속도가 비상히 높아져 공사는 단 열흘만에 끝났다.

이 기적적인 성과앞에서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완강하게 뚫고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종업원들의 이런 확신은 200일전투의 모든 목표들을 키어이 점령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불굴의 강자들로 자라난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락아소, 유치원난방보수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한달나마 앞당겨 끝내고 시기마다 긴급하게 제기되는 출판물인쇄발행에서 비약을 일으키는 등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활화산처럼 지펴올렸다. 이 과정에 공장은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지난해의 철야진군을 통해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에 넘쳐 새해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전투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정초부터 실적을 내고있는 이곳 당조직의 혁명적인 사업기풍은 올해에 더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허일무

최선의 과업으로 틀어쥐고

평성대성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몇해전 평성대성피복공장 초급당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영순동무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시원치 못한 주요원인의 하나가 기능공들이 고착되지 못한데 있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그는 근본원인이 자체의 기능공력량을 강화하는것을 공장의 비약적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과업으로 여기지 않고있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에 있다고 보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초급당일군은 기능공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기능공들이 고착되여 일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한직종에서 오래동안 일해온것을 중지로 느끼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여 한직종에서 수십년동안 일하면서 조선로동당원으로, 작업반장으로 성장한 서영희동무를 비롯한 수십명의 오랜 기능공들의 소행을 속보와 종업원모임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본인들도 멀로 크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던 자그마한 공로를 대중앞에 내세워주는 이런 사업은 기능공들로 하여금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맡은 일에 더욱 열성을 내게 했다. 또한 갓 입직한 녀성로동자들은 그들처럼 일해나갈 결심을 가다듬었다.

기능공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초급당위원회는 이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많은 일감이 제기되고 시간이 긴장한 속에서도 시간을 쪽 빼서 기능공들을 명승지들에 보내기도 하였다.

휴양권이 나왔을 때에도, 금강산과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지참관에도 기능공들을 먼저 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장에는 기능공만 하여도 수십명이나 된다. 그들의 성격과 취미, 생활경위는 다르다. 하지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그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있을뿐만아니라 기능공들의 고충을 풀어주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어느날 2직장 1작업반에 나갔던 초급당일군은 한 로동자의 얼굴이 밝지 못한것을 보게 되였다.

알아보니 그는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딸과 함께 살고있었다. 남자손이 없다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성실한 기능공이였다.

초급당일군은 그의 이런 고충을 뒤늦게 알게 된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이것을 계기로 초급당일군은 그와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더욱 심화시켜나갈 결심을 굳히였다. 그후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그의 집을 보수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얼마후에는 온 공장의 관심속에 그의 집이 새 집처럼 보수되게 되였다.

그무렵 지배인도 부모없이 할머니와 살고있는 한 기능공의 살림집보수를 도맡아해주어 그를 감동시키였다.

이곳 일군들이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피용하고있는 기능공가정방문일지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기능공들의 이름과 나이, 집주소를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달마다 계획적으로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는것을 정상화하고있는 일군들의 기풍은 그들을 분발시켰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공장의 기능공들은 생산계획수행과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 생산문화화림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자강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선의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단위사업에서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본받을만하다.

본사기자 손영희

자력자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강철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2면에서 계속

이런 일로 하여 생각에 옴해있는데 뜻밖에도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을 지명하시면서 장내를 향해 물으시는것이였다.

《기사장동무가 왔소?》

자리에서 일어선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자, 이리 앞으로 나오시오.》

주접이 든 나를 연락앞으로 불러주신 수령님께서는 동무네가 만든 제품이 왜 모두 오작이 되였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물으시는것이였다.

《오작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소?》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나라 강제로 제품을 만들다나니 수입자재를 쓰게 되여있는 검사규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여 그렇게 되였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어디 그 제품을 한번 보자고 하시며 가져오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우리가 제품을 가져다드리자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것이 모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강제로 만든것인가고 물으시였다.

그렇다고 대답을 드리자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금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과연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해주실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조이고있는데 이윽고 제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나신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자기 나라 강제로 그것도 자기 손으로 만든것인데 왜 남의 규정에 맞게 검사를 합니까.

그러시고 강제도 우리의것이고 기술도 우리의것인데 질이 좀 떨어지면 어떻단 말인가, 앞으로 계속 만드는 과정에 질을 높이면 된다고 하시며 장내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 정도이면 다 합격입니다.

예상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우리들의 심정은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수가 없었다.

우리가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라하며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는데 문득 수령님께서 나에게 기사장동무는 왜 이것을 묵인하였는가고 따지시는것이였다.

나는 심한 자책감을 안고 검사규정의 요구만을 생각하던 나머지 그렇게 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엄하게 일깨워주시는것이였다.

잘못은 국내산자재로 만들었기때문에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사상과 타협한것이요.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나는 비로소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자신께서 이미 5년전에도 비판하였지만 우리 일군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다보니 그들속에서 이런 엄중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주저하지 말고 자력갱생으로 전진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비록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하더라도 기어이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철석의 의지와 선견지명, 정력적인 령도의 생활력과 위력은 그후 미제가 우리 나라에서 일으킨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때 뚜렷이 과시되였다.

그때 미제는 까리브해위기때 쏘련과 맞서 동원시켰던 무력에 대비도 안되는 방대한 무력을 우리 나라에 끌고왔지만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에 질겁하여 끝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에도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있은지 얼마후인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중요공장,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자신께서 당대회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우리는 언제나 정화적기분에 사로잡혀서는 안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에 대하여 언제든지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언제나 군수생산을 가지고 흥정하지 말고 군수공업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이렇듯 우리 혁명의 매 년대들마다에 어느 한시도 늦춤이 없이 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지금도 나는 주체80(1991)년 9월 어느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수공업부문 일군들을 위하여 친히 심대한 연회를 베풀어주시였던 일을 잊을수가 없다.

이날 북방의 현지지도길에 계시던 수령님께서는 오래간만에 여기에 왔는데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한 동무들을 만나보고싶다고 하시며 우리들을 불러주시였다.

언제나 뵈옵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게 된 한없는 기쁨과 감격속에 설레이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자리가 정돈되자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우리 나라 군수공업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군수공장 기술일군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시고는 지난 기간 동무들이 나라의 군수공업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치하해주시면서 몸소 잔을 드시고 군수공장, 기업소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축하하여, 우리 나라 군수공업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하여, 여기에 참가한 동무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자고 제의하시는것이였다.

한평생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먼저 위해주시니 그 크나큰 은정에 모두가 눈굽을 적시면서 목메인 소리로 수령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서 들라고, 술을 마실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마실줄 아는 사람들은 다 잔을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다시 한잔 듭시다.》

우리들이 격정에 넘쳐 잔을 내는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동무들을 위하여 차린 식사이니 사양하지 말고 들라고 거듭 권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 기환단총생산으로부터 첫걸음을 뗀 우리 나라 군수공업이 40여년간의 오랜 력사를 거쳐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무기도 척척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공업으로 발전하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정일동지의 발기와 지도밑에 진행된 조국해방 40돐 열병식때에 내놓은 우리가 만든 현대적무장장비들을 보고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신 수령님께서는 몸소 잔을 높이 드시고 이 잔은 당중앙위원회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위하여 들자고 제의하시면서 앞으로도 동무들은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참으로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회에서 하신 간곡한 당부는 우리 군수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남기신 강령적인 유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한평생 품을 들여 강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해주시였기에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온갖 복락을 다 누릴수 있었으니 정녕 수령님께서 쌓으신 그 업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것인가를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체험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빛나는 유산인 강력한 군수공업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여 선군조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주체100(2011)년 10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 동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지시를 즉시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청년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경쟁과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하고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이 총발동되여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며 동맹원들모두가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이 되는 올해에 청년동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혁명과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총돌격전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 전환기에 빛나는 불멸의 시대어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천만군민은 신년사의 구절구절에 빛발치는 천출위인의 용지를 뜨겁게 새겨안으며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새해의 전투적구호를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천만총돌격전의 포성이 조국땅우에 울려퍼졌다.

새해의 행군길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이라는 또 하나의 시대어를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벅찬 숨결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에 수없이 아로새겨진 격동적인 시대어들을 끝없는 감격속에 되새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 수놓아진 시대어들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뜻깊은 올해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빛내여주신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담긴 시대어이다.

천만의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된 김정일애국주의는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가장 위력한 사상정신적원동력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는 김정일애국주의열풍속에 경제건설과 첨단돌파의 과학연구사업에서 눈부신 비약이 이룩되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어버이장군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우리 조국은 푸른 숲이 설레이는 아름다운 강산으로 변모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시대어에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존재방식으로 하는 어머니당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가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함에 대한 당의 뜻이 일군들의 첫째가는 사업원칙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가 우리 사회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이 위대한 현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현신의 강행군길에서 《황금해》, 《사회주의바다항기》라는 시대어들이 태여나고 희한한 《이채어경》이 온 나라를 기쁘게 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분출인양 새로운 시대어들이 련이어 태여났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무궁번영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빛을 뿌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신년사에서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데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은 주체위성들의 성과적발사와 세계를 뒤흔든 지하핵시험과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성공,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동방의 혜강국》, 《마식령속도》, 《만리마속도》 등의 시대어들을 낳았다.

세계를 굽어보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 자강력제일주의를 새겨안고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직선주로를 따라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강용한 모습은 《천만과학기술인재화》라는 시대어에 그대로 함축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와 함께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만난을 헤치며 백두대지에 만년언제, 청춘대기념비를 일떠세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은 《백두산영웅청년정신》, 《백두산영웅청년신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 등의 시대어들에 뜨겁게 어려있다.

력사의 온갖 돌풍을 맞받아 헤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태여난 시대어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지난해 200일전투의 진군길에 력력히 새겨진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이라는 시대어들은 허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혹심한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대재앙의 폐허우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드놀지 않을 사회주의보금자리를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온 세계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처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투쟁방식이 얼마나 위력한것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 수놓아진 시대어들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뜻깊은 올해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구승해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구승해동지는 폐염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주체106(2017)년 1월 24일 9시 79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구승해동지는 한생을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수많은 명곡창작으로 우리 당사상사업과 주체음악예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재능있는 창작가이다.

주체26(1937)년 7월 21일 황해북도 봉산군에서 태어난 구승해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유능한 작곡가로 자라나 우리 당의 음악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왔다.

동지는 오랜 기간 음악예술부문에서 사업하면서 가요 《수령님이 계시여 행복합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우리는 당의 군대》, 《인민의 세상》을 비롯한 여러편의 가요들과 남성기악과 방창 《수령님 은덕일세》, 《신아우》 등 수십여편의 전자음악작품들을 창작하여 주체음악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동지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음악예술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구승해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6(2017)년 1월 24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직총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주체조선의 생명이며 비약의 원동력인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힘을 총폭발시켜 온 나라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직맹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전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직업동맹의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킬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동맹원들속에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시켜 그들모두가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직업동맹건설과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직맹조직들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동맹원들을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공세적으로 들이대며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직업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직맹초급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동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직맹일군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동맹원들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로 부르는 전투적화폭

선전화전람회 개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선전화전람회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가 24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종합대학, 철도성미술창작사에서 내놓은 수십점의 선전화들이 전시되였다.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선전화 《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앞으로!》,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 전람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선전화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자!》, 《총력을 집중하자!》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을 비롯한 선전화들에 반영되여있다.

선전화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자!》, 《금속공업부문에서 철강재를 더 많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자!》는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하여 호소하고있다.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자!》, 《적극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리자!》, 《두벌농사면적을 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체육을 대중화하자!》 등 다양한 주제의 선전화들도 있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근로자들이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게 하는 고무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기적의 2016년의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동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경쟁과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축산물과 과일, 버섯, 남새생산을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대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도록 하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근맹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짜고들어 모든 동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근맹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는 인민의 참된 충복, 유능한 지휘성원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포평땅으로 달리는 충정의 마음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혁명일가분들의 빛나는 혁명활동업적이 깃들어있는 포평혁명사적지를 찾는 전국의 답사자들속에는 우리 사적관일군들과 친숙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속에는 평양시 락랑구역 정백고급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도 있습니다. 해마다 포평땅을 찾는 그들이지만 올 때마다 우리의 감동을 자아내군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교장 한인철, 교원 김길민, 량재성, 김인숙동무들과 김충진, 류송연, 방예철, 김진경동무를 비롯한 수십명의 학생들은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충정의 마음이 담긴 관리도구들을 안고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학교의 교원, 학생들은 이번 답사기간에도 자기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쳤습니다. 포평땅에 들어서는 그길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린 그들은 매일 사적지주변관리사업을 정성껏 진행하였습니다.

답사행군의 나날 한가지라도 더 많이 알고 하나라도 더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애쓰던 정청룡, 리옥임, 신현성동무를 비롯한 학생들의 모습과 집단에 넘치는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포평땅에 머무른 기간은 비록 짧아도 가슴속에 간직한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보여준 감동깊은 나날이였습니다.

포평혁명사적관 관장 김일명

정다운 부름속에 사는 보람

서성구역 긴재동 57인민반에 사는 한 전쟁로병의 편지를 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본사편집국앞으로 서성구역 긴재동 57인민반에 사는 한 전쟁로병이 자기의 진정을 담은 편지를 보내여왔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동일군들이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는데 대하여서와 동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고 동주민들이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단합되여가고있는데 대해 전하면서 동사무장 림순화동무에 대해 이렇게 썼다.

《매번 만날 때마다 나이는 비록 많지 않아도 친어머니같이 느껴지는 녀성입니다. …》

그의 편지를 받아본 우리는 전쟁로병들뿐아니라 동주민들 모두가 친어머니라고 부르는 동사무장 림순화동무를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그가 이곳 동사무장으로 사업한지는 몇년밖에 안된다. 그러나 최근시기 동의 면모는 새롭게 변모되여가고있다. 매 호동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였으며 놀이장들과 공공건물들도 훌륭히 개건되였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림순화동무를 비롯한 이곳 동초급일군들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동사무장사업을 갓 시작하던 때에 림순화동무에게는 내세운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사는 마을을 더 훌륭하게 꾸리자는것이였다.

그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동꾸리기목표를 단계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에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진정을 알게 된 최영숙, 리현화, 김선희 동무를 비롯한 동초급일군들이 호응해나섰으며 인민반장들도 뒤질세라 분발해나섰다.

목표가 높이 세워졌다고 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는 대오의 앞장이라고 하면서 늘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사업이 끝나면 동지구들을 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것을 어길수 없는 준칙으로 삼았다. 그의 이러한 사업작풍은 동초급일군들은 물론 인민반장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언제인가 공원꾸리기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많은 량의 흙을 처리하여야 하는 이 공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어림도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저었다. 이러한 때 남먼저 흙마대를 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림순화동무였다. 그의 불같은 마음에 고무된 주민들은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이 과정은 곧 주민들에게 자강력의 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명절이나 휴식일이 오면 림순화동무에게는 늘 해오는 사업이 있다. 그것은 자기 동의 10여명의 전쟁로병들과 독립영예군인들의 집을 찾아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넘겨주고 즐겁게 명절을 쇠도록 해주는것이다.

올해 양력설날 아침에도 그는 동초급일군들과 함께 57인민반에 사는 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다.

병상태도 알아보고 생활상문제도 료해하던 그는 전쟁로병이 덮고있는 이불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밖으로 잠간 나갔다가 포근한 이불을 안고 다시 들어서는것이였다. 그는 가지고온 이불을 덮어주면서 전쟁로병의 안해에게 앞으로 병치료를 잘해주라고 부탁하였다. 후에 알고보니 전쟁로병이 덮고있는 이불의 솜이 얇아진것을 보고 자기 집에서 새 이불을 가져온것이였다. 이 사실을 안 전쟁로병의 안해는 물론 자식들도 정말 친어머니같다고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가 전쟁로병들을 위해주던 나날에 있었던 일들을 끝자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는 이렇게 실천적모범으로 동초급일군들을 이끌었다.

하기에 11인민반에 사는 류복실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카식이 없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제 딸같기도 하고 친정어머니같기도 한 그에게 정말 감동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진정 동주민들이 친어머니로 따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그의 헌신적복무정신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명절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련환모임 마련

주체106(2017)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4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중조친선련환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강하국보건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중국대사관 성원들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중국미술가들의 창작활동모습과 서예, 공예 등의 작품들을 보면서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중국특명전권대사는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친선모임 마련

주체106(2017)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레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24일 대사관에서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외무성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체육경기도 진행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전쟁로병보양소 새로 건설

자강도에서 성간땅에 전쟁로병보양소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혁명선배들을 무한히 아끼고 존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뜨거운 온정속에 마련된 보양소는 치료실과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윽히 갖추어진 전쟁로병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양기지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전쟁로병들을 위하는 당의 뜻을 심천으로 받들어갈 열의밑에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건설자들은 설계와 시공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지휘부에서는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모든 공사에서 설계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벽체축조와 미장, 상수관설치 등 모든 작업을 립체적으로 다그쳐 건축공사를 결속하였으며 주변환경도 풍치에 어울리게 잘 꾸려놓았다.

도에서는 공사가 완공되는데 맞게 운동, 문화, 오락기재들과 수백점의 가구류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지금 보양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쟁로병들이 사소한 불편이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핵압박공조》는 수치와 파멸의 길이다

괴뢰들이 국제적인 《북핵압박공조》를 어떻게 하나 유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지난 16일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역도는 로씨야와 중국, 미국과 일본에 주재한 괴뢰대사들과 유엔주재 대사까지 서울에 불러들여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북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대북압박》에 대해 뇌까리며 새 미행정부와의 공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떠들었다. 괴뢰당국이 4개국주재 대사들과 유엔대사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모의판을 벌린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괴뢰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역도와 괴뢰외교부것들도 년초부터 미국에 련이어 찾아가 《북핵압박공조》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려왔다. 괴뢰국회 외교통일위원회소속 의원나부랭이들도 트럼프의 대통령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에 무리지어 몰려가 《북핵문제의 엄중성》을 운운하며 상전들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공조와 《동맹》강화를 청탁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매국반역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괴뢰들이 《북핵압박공조》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어대면서 그 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락인된 반공화국제재압박을 어떻게 하나 지탱하며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저들의 가련한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은 지금껏 그 무슨 《북핵위협》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며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여왔다. 괴뢰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을 《결의위반》과 《도발》로 걸고들며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의 맨 앞장에서 지랄발광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괴뢰패당은 국제적인 제재놀음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독자제재》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폐쇄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하지만 괴뢰패당이 동족압살을 위한 외세와의 공조책동으로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소동을 선군의 기치높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쳤다. 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아무리 반공화국제재압박에 광분해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힘을 도저히 당해낼수 없었다.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공조책동이 빚어낸것은 수치와 굴종, 북남관계의 파국뿐이라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더우기 남잡이가 제잡이라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으며 친미친일역적행위에 미쳐돌아가던 괴뢰패당은 최근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여 심각한 대외적고립과 경제적난국에 처하였다.

그런데도 괴뢰역적패당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공화국제재에 기대를 걸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있다. 지어 저들이 처한 대내외적위기를 미국과의 《북핵압박공조》를 강화하는 놀음으로 모면해보려고 획책하면서 상전의 옷섶에 더욱 바싹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패당의 반민족적정체를 다시한번 뚜렷이 폭로해주고있다. 괴뢰들이 미국상전과의 공조와 《동맹》을 유지강화하는것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그 무슨 《북핵폐기》라는것을 유도하고 사면초가의 위기를 해소하려 하지만 그것이 초래할것은 쓰디쓴 실패와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총파산뿐이다.

괴뢰들의 《북핵압박공조》놀음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역행하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악한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 울려퍼진 집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치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뜨거운 민족애가 맥동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와 제의를 적극 지지하면서 보수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데 대한 동족의 진정어린 호소와 성의있는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고 끝까지 동족대결의 길로 질주하려 하고있다. 괴뢰들은 저들의 고질적인 대결악습을 다시금 드러내면서 그 무슨 《진정성이 없는 통일전선공세》니 뭐니 하는 고약한 망발을 늘어놓는가 하면 동족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국제적인 《북핵압박공조》놀음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이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념원을 짓밟으면서 반공화국도발로 대화와 평화,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압살흉계를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망동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괴뢰패당이 외세와의 《북핵압박공조》를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으로 정당화해나서지만 그것은 카소로운것이다. 괴뢰들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국방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제재압박에 극성을 부리고있는것은 우리의 강국건설을 가로막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핵포기》와 《제재번화》라는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외세를 등에 업고 북남대결에 광분하는 괴뢰패당이야말로 쓸개빠진 역적무리이다.

괴뢰들의 《북핵압박공조》놀음은 남조선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더욱더 전락시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괴뢰들은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안보불확실성》을 운운하며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달라지고 《북핵압박공조》기틀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을 금치 못하였다. 이로부터 괴뢰당국자들은 미국에 줄줄이 몰려가 트럼프패거리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부아첨을 하면서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과 《북핵압박공조》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다. 그 대가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를 대폭 끌어올릴데 대한 상전의 요구를 서슴없이 들어줄 기도도 드러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괴뢰들은 트럼프행정부로 하여금 《전략적인내》를 운운하며 무모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미국을 우리의 핵타격과녁으로 만들어놓은 오바마의 전철을 답습하게 하려 하고있다.

남조선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통째로 내맡기고 상전에게 계속 바싹 달라붙어 《북핵압박공조》로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은 실로 어리석은 추태이다. 괴뢰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증주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은 더욱더 강화될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북핵압박공조》놀음은 수치와 파멸의 길이다. 괴뢰패당이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국제적인 《북핵압박공조》에 매여달릴수록 그들의 대내외적처지는 더욱 어려워질것이며 비참한 종말의 시각만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반대해나서는 역적무리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남조선괴뢰들은 그 실패가 명백해진 《북핵압박공조》놀음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심 철 영

친미주구들의 역스러운 광대놀음

병신 탈밤에 제조한다고 최악의 정치추문사건으로 하여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지고 친미친일역적행위로 대외적고립마저 심화되고있는 괴뢰들이 요즘 생풍같이 《나라사랑교육》이라는데 적극 매달려 여론의 비난을 사고있다.

괴뢰보훈처의 《2017년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반역패당은 그 무슨 《올바른 가치관확립과 나라사랑정신의 고취》를 운운하며 일명 《안보교육》으로 불리우는 이 광대놀음의 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괴뢰들이 지금까지 벌려온 숭미사대교육, 반공교육으로도 모자라 미국과의 《동맹》이 남조선에서 《핵심역할》을 하였으며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처하자면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나라사랑교육》에 포함시키려 하고있는 사실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과 맹목적인 추종의식을 심어주고 동족대결기운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대매국으로 민족앞에 지지른 저들의 만고죄악을 가리우고 더러운 잔명을 무지해보려는것이 그 무슨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불순한 광대놀음을 벌리고있는 괴뢰패당의 교활한 술책이다.

반역 《정권》이 밑뿌리채 뒤흔들리면서 《국정》마비상태가 심화되고 썩은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판에 장사말 하는데 혼사말 한다는 식으로 왕청같이 《나라사랑》라명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오도하려 하는 괴뢰들의 추태에 사람들은 조소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곳곳에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모든것을 망쳐놓고 제 배만 채운 박근혜, 최순실일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인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는데 반역패당은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라고 설교하고있는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거머쥐고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온 침략과 략탈의 원흉,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찬양하라는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무지무능한 천치가 요사한 돌팔이무당에게 홀리워 《국정》을 통탄해온 더러운 현실을 사랑하라는 말인가. 그야말로 마루아래 강아지도 웃을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세상이 다 알다싶이 남조선 《정권》은 초보적인 자주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이며 괴뢰정치라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괴뢰보수패당이 《가장 강력한 동맹》이니 뭐니 하고 입에 침이 마를새없이 추어올리는 남조선미국 《동맹》이라는것은 상전과 주구사이의 철저한 주종동맹, 예속과 굴종의 불평등한 동맹으로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되여왔을뿐이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있지만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맺고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예속관계, 부끄러운 굴종관계는 찾아볼수 없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나라사랑교육》이니 뭐니 하며 혀바닥이 닳도록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미화하여도 미국은 괴뢰들을 한갖 식민지노복, 하수인으로밖에 치지 않는다.

남조선의 력대 반역통치배들은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으면서 괴뢰정권을 유지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해왔다.

상전의 요구라면 싫든좋든 무조건 집행해야 할 의무만 걸머지고있는것이 남조선괴뢰들의 가련한 처지이다. 명색이 집권자라는 박근혜가 2년전 외국행각에서 돌아오는 길로 황급히 병원에 입원한 미국대사를 찾아가 그앞에서 굽신거리며 아양을 떤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식민지괴뢰의 가긍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파렴치한 날강도 미국은 이렇게 저들의 옷섶에 매달려 잔명을 부지해가는 괴뢰패당을 머슴으로 부리면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괴뢰패당이 이 엄연한 현실을 외곡하고 《나라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온갖 기만술책을 다 써도 자주와 통일에로 향한 시대의 흐름을 결코 막을수 없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숭미굴종사상을 부식시키려고 발광하는 괴뢰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은 그들자신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괴뢰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인 《나라사랑교육》놀음에 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할것이다.

허 영 민

민족자주와 대단합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합세해나갈것이다

총련일군들 담화 발표

총련일군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21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미테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첫아침의 신년사를 통하여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 호소문을 민족의 행동강령으로 받아안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의도에 맞게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것을 전체 조선민족에게 제기한 련합회의 호소문은 사상과 정견, 단체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선사람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조국통일의 성전에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청상회 중앙상임간사회가 중앙과 지방, 지역조직을 총발동하여 모든 회원들이 올해 조국통일투쟁에 힘차게 나서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어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가도록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족자주와 대단합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합세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거세찬 반미, 반박근혜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며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성전에서 한몫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리영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호소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의 공명정대성,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투쟁과업,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하여 전결히 투쟁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정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련합회의 호소문에서 제시된 과업실현을 위한 문학예술창작보급사업에 떨쳐나설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올해에 제2의 6.15시대를 열어놓고야말 드높은 기세로 자주통일위업성취에 총매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김현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남조선보수패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엄혹한 시기에 발표된 호소문은 공화국이야말로 민족자주와 통일의 등대라는것을 세상에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민단》산하 동포학생들, 남조선류학생들과의 단합을 더한층 강화하고 반민족, 반통일만을 일삼고있는 《민단》중앙과 남조선의 정보원패거리들의 죄행을 폭로분쇄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제끼는 성업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대와 굴종으로 연명하는 매국역적무리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에 과거죄악을 끈질기게 부정하며 오만하게 날뛰고있는 일본에 비굴하게 끌려다니는 괴뢰보수패당을 비난하는 글이 실리였다. 신문은 글에서 일본당국이 부산주재 일본총령사관앞에 성노예소녀상이 설치된것과 관련하여 자국의 대사와 총령사를 귀국시키는 등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는 괴뢰에는 괴뢰당국의 더러운 굴종외교가 깔려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일본반동들은 부산의 총령사관앞에 남조선의 시민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노력으로 성노예소녀상이 세워지자 무슨 큰 변이 난듯이 법석 고아대며 그것을 당장 치우라고 괴뢰들에게 련일 압력을 가하고있다.

부산주재 일본총령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은 괴뢰당국이 2015년 12월 일본당국과 성노예문제에 관한 굴욕적인 《합의》를 조작한 때로부터 1년이 되여오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세운것이다. 일제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노예소녀상이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뿐이 아니라 부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일본총령사관앞에 세워진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괴뢰들에게 항의한다 어쩐다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저들의 대사와 총령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경제적압박을 강화하고있다. 일본수상이 베까지 나서서 저들이 돈을 냈으니 남조선도 《합의》를 리행하라고 고아대고있다.

문제는 괴뢰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역적패당이 일본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위에 항변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고있는것이다.

황교안역도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언을 신중히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위치와 정신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역도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라는데서 다른 나라 대사관이나 령사관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것은 《외교관례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성노예소녀상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수작을 늘어놓아 남조선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지금 괴뢰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가 파기되면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빚어지고 대외적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어떻게 하나 일본상전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은 미국의 간섭때문이다. 얼마전 전 미국무장관 케리는 윤병세역도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1년간의 남조선일본관계가 좋았는데 그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것은 일본당국의 요구대로 부산주재 일본총령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을 딴데로 옮기고 사태를 빨리 마무리지으라는 지령이였다. 괴뢰들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며 친일망동을 공공연히 부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서슴없이 팔아먹으며 인민들에게 수치와 굴욕을 들씌우는 괴뢰역적패당을 남조선 각계는 격분에 넘쳐 단죄규탄하고있다.

지난 14일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진 12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수많은 인민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몇푼의 돈으로 덮어버리는 굴욕적인 《합의》를 꾸며내고 그 리행을 운운하며 친일역적행위에 미쳐날뛰는 괴뢰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릴것을 다짐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성노예소녀상과 관련한 일본당국의 오만무례한 태도와 괴뢰당국의 굴종적인 자세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먼저준 더러운 돈을 즉시 반환하고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없앨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친미친일역적의 무리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한 남조선은 영원히 수치와 굴종의 수렁에서 헤여날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적존엄을 되찾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박근혜역적패당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 철 남

강추위속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대결본색을 드러낸 정치협잡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괴뢰들의 반공화국압살소동에 적극 편승하던 반기문이 남조선에 돌아오자마자 갖은 대결악담을 오물처럼 쏟아내여 각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어중이떠중이들을 앞세우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천안》호전시관이라는데 나타난 반기문은 《충돌사고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느니, 《사고가 아닌 명백한 폭침》이라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천안》호침몰사건과 같은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안보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미국과 괴뢰패당의 비렬한 날조극, 파렴치한 모략극이라는것은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은 남조선에 돌아온 이후 첫 지방일정으로 《천안》호전시관을 찾아가 거기에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였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극악한 대결광신자, 반통일호전광으로서의 반기문의 흉악한 정체를 잘 알수 있다.

동족압살야망이 골수에 박 들어찬 반기문은 《북핵위협》으로 인해 조선반도정세가 《준전시같은 상황》이라고 고아대면서 《싸드》배치를 정당화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이자가 박근혜패당과 마찬가지로 《싸드》는 《북의 핵개발과 탄도미싸일기술축적에 대한 순수한 방어용》이라는 파렴치한 나발을 제치면서 그 배치는 《마땅한 조치》라고 피대를 돋구고있는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반기문은 《〈정부〉가 북핵문제에 잘 대응》하고있다느니, 《비핵화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느니 하고 수작질하면서 박근혜역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로골적으로 비호두둔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악의에 차서 비난하고있다.

지금껏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여온 반기문의 그 더러운 행적을 따지고보면 반통일적이며 반인민적인 체질에서 리명박역도나 박근혜역도에게 조금도 짝지지 않는다. 반기문이 유엔에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압살소동의 너절한 돌격대노릇을 극성스럽게 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있던 지난 10년간 북남관계가 완전파국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극도로 고조된 사실만으로도 이자의 친미사대적이며 반민족적인 죄악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들에 대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유엔 《제재결의》들이 조작된것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기문의 망동과 절대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반기문은 우리 공화국이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한 직후 이에 적으로 단독기자회견까지 열고 《유엔결의위반》이니,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느니 뭐니 하며 미친개처럼 날뛰였는가 하면 뻑하면 《북이 세계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나발을 불어대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여 유엔에서 각종 《제재결의》들과 《북인권결의안》들을 조작하는데 앞장선 반기문의 죄악은 실로 엄청난것이다.

보다싶이 반기문역도는 박근혜역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인 《신뢰프로세스》와 《싸드》배치, 일본과의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와 그 리행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핵압박공조》의 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유엔에 반기문과 같은 친하의 친미역적, 동족대결광신자가 틀고앉아있었으니 북남관계가 어찌 편안할수 있고 대화와 협력의 길이 어떻게 열릴수 있었겠는가. 외신들이 반기문을 《유엔력사상 최악의 총장》, 《놀라울 정도로 유명무실한 인물》, 《주대가 없는 미국의 삽살개》라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최근에는 반기문이 유엔에 《조선반도정화위원회》라는 기구를 내오고 그 수장으로 박근혜를 내세우는 대가로 권력의 자리를 넘겨받고 국제무대에서 박근혜의 몸값을 올려 역도가 노벨평화상까지 타먹을수 있도록 서로 정치적밀약을 한 사실이 폭로되여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핵심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리재만이 폭로한데 의하면 박근혜역도는 반기문에게 다음기 《대통령》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자기를 영향력있는 유엔의 지도급인사로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반기문이 유엔에서 탁은 발판을 리용하여 새로운 유엔기구인 《조선반도정화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자기가 그 수장자리에 올라앉을수 있게 도와달라는것이였다. 박근혜역도는 그렇게 나온 《조선반도정화위원회》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노벨평화상을 받을 개꿈까지 꾸었다고 한다. 리재만은 박근혜는 이런 타산밑에 반기문에게 손을 내밀었고 반기문도 그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함께 움직이게 되였다고 토설하였다.

반기문이야말로 박근혜년에게 붙어 권력욕을 채울 야심을 품고 년과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뛴 쓰레기같은 인간이다.

권력욕에 환장한 반기문이 반공화국대결로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고 보수패당을 끌어당겨 정치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하지만 박근혜역도와 같고같은 더러운 정치시정배에게 남조선인민들은 침을 뱉고있다.

박근혜역도의 매국반역책동의 공범자인 반기문이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라 영 국

남조선언론들이 재벌을 비호하는 괴뢰사법부를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리재용 불구속, 초불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느니 뭐니 하면서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을 기각시켰다고 폭로하였다.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이 특별히 기각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그가 《국회》청문회에서 최순실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K스포츠나 더블루K와 관련하여 선의로 지원하였다고 하였다가 뇌물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압에 의한것이였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고 까밝혔다.

사설은 무엇보다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제계순위에 따라 자금을 낸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직접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주고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재벌이나 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름없는 승마선수에게 무려 220억원의 지원계획을 세운 리유는 그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이를 위해 박근혜가 직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였다는것은 이미 밝혀진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이 과정에 6 000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리재용은 3조원의 리득을 얻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사법부가 초불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17년간 한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적이 없었던 퍽스운전사를 2 400원 부족하게 입금하였다는 리유로 해고한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만원도 240만원도 아닌 2 400원이다.

민중에게 6 0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3조원을 무단 획득한 리재용이 불구속이라니 초불이 이제 사법부를 향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같은 날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도 《사법부가 청산대상임을 밝힌 력사적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괴뢰법원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하였다.

사설은 특검이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하였지만 애초에 그것이 발부되기를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구속령장기각은 불공정한 재판을 합리화하는 기만술책일뿐이라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모호한 말로 엄중한 범죄혐의자이자 로골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있는 당사자를 석방하는것이 진정 정의로운 판결인지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사설은 이번 구속령장기각은 단순히 리재용석방만이 아니라 국민년금손실액 6 000억원에 대한 죄를 감면시키는 판결로서 결국 박근혜의 죄를 감면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단죄하였다.

민중이 더이상 사법부에 미련을 두는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항거해나서고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구속령장기각소식을 듣고 《사법부는 죽었다.》, 《뿌리깊은 삼성장학생의 그늘》 등의 반응을 보이는 민심을 보라.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기각사건은 사법부도 청산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항쟁의 지름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오바마의 대조선정책파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오바마집권기간이 끝났다. 오바마와 그의 떨거지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모두 떨어져나와 뿔뿔이 제 갈길을 가고있다.

이를 전후하여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숱한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을 력사의 수술대우에 올려놓고 구체적으로 해부해보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극도로 높이여 얻은것이 있는가. 없다. 도리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조선핵위협공갈의 력사에 종지부만 찍어놓았다.

극악무도한 제재압박을 들이대여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둔것이 있는가. 그것 역시 없다. 반대로 미국의 제재압박은 조선이 자력자강을 동력으로 하여 핵강국, 우주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길로 더욱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의 여기저기에 수술칼을 대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공하였다는 점은 티끌만큼도 찾아볼수 없다. 프랑스의 한 언론이 오바마행정부가 조선을 상대로 위협과 제재강화의 두 수단을 동시에 쓰는 전략을 추구하였지만 다 실패하고말았다고 한 주장에 다른 전문가들, 언론들도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총평은 락제, 완전한 파산이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미국에 주는 심각한 총고가 있다. 오바마행정부의 실패한 대조선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총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두 전문가나 언론의 주장도 아니고 많은 전문가, 언론들이 심중한 분석끝에 내리는 공통된 결론인것만큼 그를 무시하다가는 엄청난 랑패를 볼수 있다. 력대 미행정부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세계를 함부로 대하던 시절은 영원히 미국의 곁을 떠나갔다.

시간은 결코 미국의것이 아니다.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에서 찾아야 할 심각한 교훈은 시간을 돌려싼 우리와의 대결에서 미국이 절대로 이길수 없다는것이다.

오바마행정부의 집권기간은 1기, 2기를 다 합쳐 8년이였다.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오바마정권은 4년을 주기로 련속 이어진 자기 임기내에 조선을 악화,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의 세기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였다.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알려진 황당한 《전략적인내》정책을 내든것은 오바마페당의 이러한 야망을 반영한것이였다. 그에 따라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제재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우리의 《위협》을 부각시켜 주변나라들을 제재압박에 끌어들이기 위한 선동을 제기때마다 일으켰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지는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망상하였다.

하지만 그 계책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오바마집권기간에 우리 나라는 4차례의 핵시험과 3차례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대성공하는 위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과학기술과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제작한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졌다.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꾸려진 육아원과 애육원,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맑고 랑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사회주의내 조국의 힘찬 동음이 되여 어지러운 광풍이 휘몰아치는 지구에 청신한 기운을 안겨주고있다. 우리의 산과 벌, 바다에서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빛나는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미국의 책략가들이 두뇌를 합치고 고성능콤퓨터들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짜놓은 시간표가 모두 헝클어졌다. 웬만한 나라같으면 이미 붕괴되고도 남았을 그 시간에 조선은 놀람게도 이 행성의 불사신이 되여 억척같이 일떠서고있는것이다.

오바마정권이 퇴임한 시각을 기준으로 조미의 승패관계를 보면 조선은 승리자가 되여 환하게 웃고있고 미국은 패자가 되여 울상을 하고있다. 이것 역시 미국이 상상해보지 못한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패배는 결코 오바마정권의 실책에 의해서만 초래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 뿌리는 핵무기사용과 핵위협공갈의 어지러운 력사를 최초로 만들어내였으며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저세상으로 간 트루맨과 남조선에 숱한 핵무기들을 끌어다 전진배치해놓은 그의 후임자들이 저지른 엄청난 과오에 있다. 가깝게는 랭전종식후 우리의 정화적핵활동을 문제시하면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한 클린톤집권때부터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국제관계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는 클린톤으로부터 부쉬,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지난 3대의 미국대통령들이 취임전에 인계받은 중요문건들은 조선핵개발관련자료들이였고 그에 덧붙인 내용들은 조선이 핵무장하는 악몽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충고들로 일관된것이였다. 미국이 조선의 핵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려세우기 위해 협상 및 제재수단들을 총동원하면서 숱수 시간끌기전술에 매달렸지만 모두 실패하고말았다라고 주장하였다.

보다싶이 시간은 력사적으로 조선의것, 우리의것으로 되여왔다. 미국의 시간끌기전술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그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더욱 강해지게 될것이다.

최근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국립핵연구소의 이전 소장이며 스탠포드종합대학 국제안보 및 협조센터 상급연구사 헥커는 신문 《뉴욕 타임스》에 발표한 글에서 자기가 2004년에 조선의 녕변핵시설을 처음으로 돌아보았을 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핵무기고가 생기고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은 이미 남조선과 일본의 전지역은 물론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일부 지역들을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핵시계가 계속 돌아가고있는 상태에서 조선은 자기 핵무기고에 새로운 핵무기를 저장할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줄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선택은 새 행정부가 조선과 대화하는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이 어떻게 되여 초대국인 미국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면서 승승장구하고있는가. 미국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심중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시간은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쥔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있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온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자강력으로 외세의 압력과 위협공갈을 물리치고 경제적번영과 기적을 안아오는것은 우리의 빛나는 전통, 변함수 없는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공갈과 제재뿐아니라 대국주의자들의 멸의멸 압력도 다 받아왔다. 우리가 시대와 외세의존에 물젖어있었다면 아마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압박에 견디여내지 못하였을것이며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가 되거나 대국주의자들의 속국으로 되였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대외정책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자강력을 틀어쥐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부쉬정권의 악랄해지는 핵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첫 핵시험을 단행하고 핵보유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오바마집권시기에 우리의 자강력의 위력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새로운 병진로선, 원쑤들이 실현불가능한것이라고 극악무도하게 헐뜯던 위대한 전략적로선의 승리도 자강력제일주의로 마련한것이다. 자주의 핵강국, 우주강국도 우리 인민이 지닌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결실이며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활로도 우리 인민이 지닌 자강력제일주의에 의해 마련되였다.

지금 전 미국제개발처 보조행정관 로저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이 그 어떤 압력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것이 조선의 전통이고 존재방식이며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우리의 력사와 오늘의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내린 결론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바마행정부가 강행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과산에서 찾아야 할 교훈은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쥔 인민의 나라, 선군조선을 그 무엇으로써도 꺾지 못한다는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나 없다.

물론 미군부는 우리 공화국을 짧은 시간내에 기습적으로 핵선제타격하여 초토화시켜보려는 각종 전쟁계획들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미국을 최후멸망에 빠뜨리는 엄청난 사태를 빚어내는것으로 될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미군부의 발목을 세차게 휘감고있다.

이미 1950년대에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3년만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 수치를 당하였다.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는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될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미국본토가 우리의 핵주먹안에 들어있다는것을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는 사변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시간은 미지배층에 미국의 최후멸망과 조선과의 정화적공존이라는 두 길중 한길을 택할것을 분분초초 요구하고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려세울수 없다.

미국은 이제라도 대담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리 경 수

국제사회계가 강조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천하무적의 강군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령군술을 지니신 또 한분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제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정치군사적으로,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인민군은 만약 미제가 감히 전쟁을 도발한다면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있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당정치사업을 전군의 일심단결, 혼연일체를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며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라는 구호를 들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임무수행중 뜻하지 않게 희생된 군인들의 표주가 되시여 그들모두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신 김정은각하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는 인류를 감동시키고있다.

최고사령관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부대, 이것이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이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 피. 마이날리는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조선의 사회주의를 붕괴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고 토로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인 방글라데슈자력갱생연구소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광범한 국제사회는 김정은령도자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무비의 배짱에 대한 경탄으로 끓어번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미대결과정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최전방초소들을 련이어 시찰하고계신다.

측과 깊이를 알수 없는 그이의 변화무쌍한 지략과 작전은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있다.

조선의 군대를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김정은령도자는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다.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가장 큰 영광과 긍지로 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방에 이름떨치고있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천하무적의 강군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식량문제해결노력

케니아에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는 정부가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한데 기본을 두고 국가예산을 다시 세울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안을 내놓을것을 지방정부들에 지시하였다.

현재 나라에서는 150만명이 긴급식량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처해있다 한다.

야생동물보호조치

탄자니아정부가 최근 나라에서 서식하고있는 하마들에 대한 통계조사사업을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밀렵행위로 하마들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취해진다고 한다.

2001년당시 등록된 하마수는 2만마리이상에 달하였다.

국내총생산장성전망

방글라데슈에서 올해 6월에 끝나는 현 회계년도에 국내총생산이 7.5% 장성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비행장건설계획

탄자니아정부가 16일 비행장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도도마주에 새 국제비행장이 건설되게 된다.

비행장이 건설되면 나라의 항공운수발전에 이바지할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계획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콩수출 증대

말라위에서 지난해 4월에 시작된 현 회계년도의 첫 9개월동안에 약 100만t의 콩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만t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14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반테로작전

로씨야의 체츠냐공화국에서 14일 반테로특수작전이 진행되였다.

15일 체츠냐공화국 수반 까디로브가 밝힌데 의하면 작전과정에 국제테로조직의 조종을 받던 3명의 테로분자가 제로되였다.

반항공무력강화노력

인도네시아가 반항공무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18일 이 나라 공군의 한 고위관리는 중부와 서부, 동부지역에 12개의 레이다를 새로 배치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항공감시를 강화하여 외국비행기들의 침입을 막고 령공을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패자의 역겨운 노죽

최근 오바마가 대통령자리를 내놓기 전에 시카고에서 마지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미국이 8년전에 비해 《더 낫고 강한 나라가 되였다.》고 자기의 치적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으면서 눈물까지 질질 흘리는 노죽을 부렸다. 오바마가 일류급 연극배우도 왔다가 울고갈 연기술로 고별사라는것을 했지만 미국민들에게 마지막인사를 전하는 장소로 백악관이 아닌 《정치고향》으로 자칭하는 시카고를 선택한것만 보아도 뻔뻔치 못한 그의 행적을 알수 있게 한다.

8년전 세계적범위에서 쇠퇴해가는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할것이라고, 력사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국에 《대변혁》을 안아올것이라고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으며 백악관에 둥지를 틀었던 오바마행정부는 오늘에 와서 《가장 완패한 정권》이라는 수치를 뒤집어쓰고 패기처리되였다. 대외적으로 오바마에게는 미국이라는 전쟁기계를 막다른 골목에로 몰아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국내적으로 해결불가능한 인종갈등과 극심한 빈부차이, 헤어나올수 없는 경제침체로 하여 자국민들의 원망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울려나온것이 오바마집권기간 미국의 모습이다.

그가 한것이 있다면 미국에 허울만 남은 초대국, 붕괴되는 딸라제국, 정신문화적타락의 왕국, 세계최대의 인권범죄국이라는 오명들만 붙여놓고 나라를 망해가는 제2의 로마제국으로 만들어놓은것뿐이다.

오죽하면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의 한 성원이 오바마가 퇴임연설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린것을 두고 인위적으로 쥐어짠 눈물이며 뻔뻔스러운 협잡행위에 불과하다고, 그의 모든 국내외정책들은 완전한 실패작이였다라고 신랄히 비난조소하였겠는가.

오바마가 역겨운 노죽을 부렸지만 미국인들과 세상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기는커녕 세계평화를 위협에 빠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였다고 비난하며 침을 뱉고있다.

라 명 성

2017년 유럽짧은주로 속도빙상선수권대회소식

2017년 유럽짧은주로속도빙상선수권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이딸리아의 토리노시에서 진행되였다.

대회 남자경기에서 로씨야선수가 종합성적 86점, 녀자경기에서는 이딸리아선수가 종합성적 79점으로 각각 1위를 쟁취하였다.

또한 남자 5 000m이어지치기에서는 네데를란드선수들이, 녀자 3 000m이어지치기에서는 이딸리아선수들이 우승하였다.

에 짚 트 의 력 사 유 적

태풍과 폭설

도이췰란드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최근 태풍과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

이 나라에서 지난 1월초부터 시작된 태풍과 폭설로 13일현재 수십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한다.

바이에른주와 헤쎈주, 바덴-위르템베르그주 등 여러 지역들에서 송전선이 끊어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도처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라인란드 팔쯔주와 자를란드주에서는 초당 40m이상의 강풍으로 나무들이 넘어지고 니데르작쎈주에서는 많은 눈이 내려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한다.

미군전투기 추락

미국 미씨시피주에서 17일 비행훈련에 돌아치던 군용기 《T-45C 고스호크》가 추락하였다.

전투기는 주의 동부지역에 있는 한 군사기지에 떨어져 박산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푸에블로》호의 운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근 반세기전 우리의 영웅한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오늘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끼고 유유히 흐르는 보통강반에 묶여있다.

1968년 1월 23일, 미중앙정보국의 지령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들어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에 의하여 나포되였다. 당시 세계는 벽력 끓었다.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이 자그마한 나라 조선에 코를 꿰이였다. 그 어느 해역에서도 잡히지 않고 간첩행위를 하던 유명짜한 《푸에블로》호가 용감무쌍한 조선인민군에 의해 나포되였다, 미국은 찔찔매고있다는 여론들이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미호전광들은 《《푸에블로》호가 미국공민전쟁이래 바다에서 나포된 첫 미국함선》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불맞은 이리떼마냥 날뛰였다.

미국은 《보복해야 한다.》,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푸에블로》호를 빼앗아와야 한다.》고 으르렁대면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기동타격집단을 조선동해로 출동시키는 등 조선반도정세를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지어 《푸에블로》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우리 공화국을 위협해나섰다.

미국은 어느 나라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저들의 간첩선이 우리 나라에서 붙잡힌것으로 하여 당하는 수치를 어떻게 하나 만회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우리 나라에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다. 온 세계가 제2의 조선전쟁이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 호전광들의 등줄기를 후려갈기는 멸적의 선언이 퇴성쳤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은 미제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지난 조선전쟁때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는 폭탄선언이였다.

조선의 멸적의 기상앞에 미국은 굽어들고말았다.

그때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후 미국은 공화국의 령해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와 적대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사죄문에 서명하였다.

사죄문을 읽고난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은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라고 우는소리를 했다.

당시 월남신문은 론평을 게재하여 《《푸에블로》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는 미제국주의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의미하며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조선인민의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된다.》라고 평하였다. 불스까신문은 론설에서 《미국대표가 사죄문에 서명함으로써 《푸에블로》호사건은 막을 내렸다. 결국 《보복》으로 통칭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은 웃음거리로 되고말았으며 미국은 한갖 종이범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상만 남기게 되였다.》고 미국을 조롱하였다. 영국신문은 《자기의 전능을 자랑하는 미국도 무능을 드러내고있다. 《푸에블로》호사건을 통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항복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도 사설에서 《미국이 업게 조롱당한 《푸에블로》호사건과 미국정부의 사죄는 매우 쓰디쓴것이였다. 세계최강국을 뽐내던 우리 미국이 뒤골목의 서툰 싸움군처럼 작은 나라 조선에 한대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있다고 한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라고 개탄하였다.

그 이후에도 조미대결은 계속되여왔으며 미국은 언제나 패자의 수치를 면치 못하였다.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그 이듬해인 1969년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단방에 격추되였다. 1976년 판문점사건때에도 역시 미국은 흰기를 들고 공동경비구역안의 질서를 변경시킬데 대한 조선인민군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1977년 7월과 1994년 12월의 미군직승기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이 터졌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조선인민앞에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의 도발에 의한 첨예한 조미군사적대결들은 매번 우리의 승리로 결속되였다.

미국은 지나온 조미대결력사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만일 미제가 우리에게 항복서를 바쳐온 패배의 전통을 망각하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것은 미국자신의 최종멸망을 앞당기는것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반일집회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최근 반일집회가 벌어졌다.

일본수상 아베의 행각을 반대하여 벌어진 집회에는 이전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마닐라주재 일본대사관앞에 모여 일본당국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응당 배상을 할 대신 이를 회피하는데 대해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일본의 권모술수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력사교과서들에 성노예범죄문제를 박아넣도록 일본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제재 정책을 조소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이 최근 미국의 NBC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정책을 조소하였다.

그는 제재를 반대하는 로씨야정부의 립장을 밝히고 미국의 대로씨야제재가 오히려 로씨야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여 로씨야는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을 자체로 개발하였으며 농업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럽땅에서 부활되고있는 랭전

얼마전 미제4보병사단병력 3 500명과 수백대의 무한궤도차량 등으로 구성된 기갑려단이 뽈스까에 추가전개되였다. 랭전종식이래 유럽에 배비되는 미군무력으로서는 최대규모이다. 미군병력은 나토의 훈련계획에 따라 뽈스까에서 1개월정도 군사연습을 벌린 다음 도이췰란드와 로므니아로 이동하여 추가연습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해 10월말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열린 나토국방상회의에서 토의, 채택된 발트해연안국들에 대한 추가병력투입결정에 따른것이다. 미국이 로씨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떠들어대면서 이렇게 하도록 성원국들을 사촉하고 압박하였던것이다. 이번에 뽈스까에 전개된 미군무력은 동유럽에 증파되는 나토무력의 선견대이다. 미국은 4월에 가서 미국본토로부터 수천명의 병력과 수십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을 동유럽나라들에 더 이동전개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카운데 미국은 유럽에서 벌려놓는 군사연습의 회수와 규모를 더욱 늘일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유럽주둔 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자는 이 모든것이 로씨야의 침략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의 령토완정을 담보하며 전체 유럽지역에서 자유와 번영, 평화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력설하였다.

외신들도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전례없는 무력증강과 군사연습소동이 로씨야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유럽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로씨야가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강경자세를 보이고있다.

국제사회는 새해벽두부터 뚜렷한 대결양상을 띠며 확대되고있는 로미사이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들을 놓고 커다란 우려감을 표시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로씨야를 거들면서 유럽땅에 미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유럽에서 랭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로씨야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나토의 무력증강책동을 정당화해왔다. 로씨야가 이에 대응한 군사적조치들을 취하면 또 그것을 구실로 나토성원국들을 로씨야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군사적압박에로 부추겼다. 서로 상대방의 행동은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자기의 행동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정당화하는 악순환속에 쌍방간의 군사적긴장은 계속 고조되기만 하였다.

이번에도 일은 그렇게 되여가고있다.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미군무력의 증파는 지역에서의 전략적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로씨야의 대응조치들을 유발시키고있다. 로씨야외무성은 미국이 로씨야국경과 린접한 동유럽나라들에 추가병력을 배비하고 대규모적인 군사훈련들을 진행하는것은 유럽의 안전을 과괴하는 요인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로씨야국방성은 올해 자기 나라의 전략로케트군이 전투준비를 갖추기 위한 훈련회수를 2016년보다 늘일것이며 10여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진행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방대한 미군무력이 울리는 요란스러운 무한궤도소리를 들으면서 또 로씨야의 군사력강화조치들을 목격하면서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겠는가. 로씨야의 침략이 각일각 현실로 다가오고있다는 위구심과 여기에 맞서야 한다는 대결의식만 커갈것이다. 미국이 바라는것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토성원국들의 군사장비와 병력들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 지역에 투입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책동으로 온 유럽땅에는 또다시 랭전의 분위기가 떠돌고있다. 미국이 동유럽에서 무력을 증강하고있는 진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미국주도하의 나토와 로씨야는 사실상 랭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다. 유럽에만도 200여개에 달하는 미국제핵폭탄들이 배비되여있다. 로씨야도 지난해에 공개한 《싸르마트》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완성에 박차를 가하는것과 함께 모든 전략핵무기들의 전투경계태세를 유지하고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쌍방은 지난 세기의 랭전때처럼 다른 지역들에서 대리전쟁을 하고있다. 쌍방사이의 사소한 군사적충돌이 인류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입히는 새로운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져지게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랭전, 미국은 이것을 자기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더없이 유리한 국면으로 보고있다. 신랭전전략으로 미국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나토의 힘까지 발동하여 잠재적적수인 로씨야에 대한 압박과 억제를 보다 용이하고 강도높게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로써 미국은 랭전구도의 유지로 이전 쏘련을 붕괴시킨것처럼 오늘의 로씨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있다.

동시에 유럽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지역나라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더 단단히 거머쥘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하고있다. 로씨야에 의한 유럽의 안보위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랭전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유럽나라들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될것이며 이를 통해 유럽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또 다른 속심이다.

한편 랭전구도하에서 적대적인 쌍방사이에는 반드시 군비경쟁이 치렬해지게 된다. 지금도 미국의 부추김밑에 대부분의 유럽나라들이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있으며 로씨야도 전략무력을 현대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다.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은 그만큼 제약을 받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유럽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늘여 폭리를 보고있다.

미국이 몰아오고있는 유럽에서의 신랭전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지난 시기 오바마행정부가 유럽나라들속에서 로씨야를 악마로 만들기 위해 분주탕을 피우면서 대결기운을 고취한것은 이때문이다.

제반 사실들은 지배권확립을 위한 로미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한 유럽은 결코 평온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ㄱ-710139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